

## 2022 열린 인생 9.

### 가다림은 채움의 시간입니다(충만하여 흘러가는 삶)

[사도행전 4: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 1. 카이로스의 영적 원리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타이밍은 다른 말로 하면 '적정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시간'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여도 조리하는 적정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유통 기한'이다. 음식에 유통 기한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적정 시간'과 '유통 기한'이 있다.

영적 원리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때는 적정 시간이다(적당한 때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정한 시간이다). 축복의 인생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것이다. 유통 기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넘기지 말고 그 시간에 반응하는 삶을 말한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다. 사역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정렬되는 순간이다. 그 중에 강력한 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다. 둘의 만남은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제작자는 하나님이시고 감독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배우는 고넬료와 베드로다.

#### (1) 고넬료

[사도행전 10:1-2]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에 보니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주목할 것은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말한다. 즉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고넬료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열린다. 4절을 보자.

[사도행전 10: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천사를 본다. 천사의 업무는 사역이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내용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는 때이다. 고넬료가 받았던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은 오순절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와 같은 성령 세례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44-47]

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47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부어진 것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같았다.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47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자신들처럼 성령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이방인들이 언약의 자손이 된 중요한 사건이다. 이 엄청난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 단서는 고넬료의 삶에 있다.

#### 2절 ~항상 기도하더니 / 4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하나님의 때가 고넬료에게 바로 열린 것이 아니다.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은 그가 항상 기도함으로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 (2) 분량이 채워지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이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

[요한계시록 8:3-5]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에 금 향로가 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로에 가득할 때 천사가 기도의 향이 가득한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는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형상화하여 보여 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 ‘분량’

분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작은 일은 ‘작은 분량’이 필요하다. 반면 큰일은 그만큼 향로가 크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연합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는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열리는 것’이다. 오늘 고넬료에게 이방인으로는 처음 성령 세례의 문이 열린 것은 바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함으로 그 분량이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 2. 흘러넘침과 결핍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은 충만함으로 흘러넘치지 못하는 것이다. 충만함으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경험으로 사역을 한다(하나님의 일을 내 뜻으로 조작할 수 있다).

## 3. 충만과 흘러감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라.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난다.

[사도행전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방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4: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6:8]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13: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과 스테반이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권능이 나타났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충만했기 때문이다.

## 4. 기다림은 채움의 시간이다.

‘열린 인생’, ‘열린 가문’, ‘열린 교회’, ‘열린 일터’가 되기를 원하는가?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채움의 시간이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옷이 젖는 시간이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에스겔 47장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이 차고 흘러넘쳐 온 열방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